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과 熙藏의 造像

李熙靜*

〈목 차〉

- I. 머리말
- II. 梵魚寺 大雄殿 木造釋迦如來三尊佛坐像과 發願文
- III. 熙藏의 紀年銘 佛像과 그 特徵
- IV. 熙藏의 활동과 관련 조각승
- V. 맺음말

국문요약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梵魚寺는 통일신라 이래에 건립되어 지금까지 그 寺勢를 자랑하며 유지되어 온 사찰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웅전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중기의 건물로, 이곳 전각 안에는 조선 중기에 조성된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이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에 관한 내용은 사찰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佛像記文』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1661년에 조성되었으며 熙藏이라는 수화승을 비롯하여 모두 7명의 조각승이 포함되어 있었다.

희장은 조선 중·후반에 활동한 불교조각승으로 기존 조사에서 1649년 구미 수다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 1649년 구미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50년 진안 금당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54년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문화재지정 조사에서 1658년 부산 선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복장기만 발견),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조성 등 수화승으로서 10여년의 활동을 파악할 수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있었다.

그의 작품은 상의 측면이 매우 두텁게 표현되어 있으며, 오른쪽 어깨 대의의 안쪽 주름을 것처럼 빼내어 표현한 것이나 양다리 사이에 넓게 펼쳐진 주름, 무릎 쪽으로 흘러내리는 소매 주름은 회장이 제작한 불상에서 오랫동안 표현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통도사 약사전과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의 양식과도 일맥상통하고 하고 있으며, 1650년대에 제작한 회장의 작품으로 추정해 보았다.

회장은 1638년 쌍계사 목조삼세불·보살입상 조성에 보조회승으로 시작하여 1661년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조성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각승 중에는 회장의 작품을 따르는 조각승도 확인되는데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寶海, 그리고 남해 용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조성한 智玄과 같은 인물은 얼굴의 인상, 인체의 비례, 법의가 얇으면서 부드러워지는 조각수법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회장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17세기 전반과는 다른 17세기 중·후반의 양식을 주도했던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즉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 중에는 회장 혹은 회장풍의 작품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비교·검토한다면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있어 유품문제도 분명해 질 것이다.

주제어 : 梵魚寺, 熙藏, 熙藏風, 彫刻僧

I. 머리말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梵魚寺는 통일신라 이래에 건립되어¹⁾ 지금까지 그 寺勢를 자랑하며 유지되어 온 사찰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웅전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중기의 건물로, 이곳 전각에는 조선 중기에 조성된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이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의 조성연대와 조각승은 사찰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佛像記文』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熙藏(希藏, 熙莊)이라는 수화승을 비롯하여 모두 7명의 조각승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은 범어사 대웅전 조사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으며,²⁾ 조선 중기에 활동한 불교조각승으로 기존 조사에서 1649년 구미 수다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 1649년 구미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50년 진안 금당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1654년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문화재지정 조사에서 부산 선암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에서 『造像重修願文』, 『若功悟道卷』, 『新造成願文』 등의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新造成願文』에는 회장이 아미타불을 조성했다는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어 그의 활동영역이 전라도는 물론 경상남도 와 경상북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회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³⁾는 이루어져 있는 편이나 회장의 양식적 특징이 잘 반영된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존에 조사 연구된 회장의 작품과도 비교·검토하여 그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상도 지역 사찰에서 회장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불상에 대해서도 양식적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고, 아울러 회장의 활동과

1) 『梵魚寺蹟』을 바탕으로 범어사 창건에 대하여 신라 흥덕왕(太和 19年) 때 의상이 창건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인다. 즉, 태화 연호는 9년까지만 사용되었으므로 태화 9년 을묘(835)로 보아야 타당하며, 이때 의상(625~702)은 이미 사후로 전혀 역사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8세기 전후로 올라가는 유물도 범어사 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신라 하대로 추정되는 석등, 석조팔각대좌, 삼층석탑 등만이 남아 있어 적어도 신라 하대에는 범어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몇몇 학자 중에는 흥덕왕 때 범어사가 큰 중창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최완수, 1995, 『명찰순례』, 대원사, 371~375쪽; 채상식·서지창·김창균, 1994, 『범어사』, 대원사, 20쪽).

2) 범어사성보박물관, 2002, 『梵魚寺聖寶博物館解說集』, 『梵魚寺聖寶博物館名品圖錄』.

3) 송은석, 2006, 『고흥 능가사 대웅전의 목조불좌상』,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176~196쪽; 宋殿碩, 2007,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崔宣一, 2006,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계보의 파악은 물론 관련 조각승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II. 梵魚寺 大雄殿 木造釋迦如來三尊佛坐像과 發願文

1.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본 작품은 범어사 대웅전 중앙 불단 위에 석가영산회상 후불탱(1882년)을 배경으로 수미단 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이다 **그림 1**.



그림 1.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1661년

중앙의 본존불은 향마상의 석가여래이며, 좌우협시는 보관과 영락을 착용하고 양손에 연꽃가지를 대칭으로 각각 왼보살상이다. 불보살상 3구 모두 여래와 보살이라는 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신체비례나 제작기법이 대동소이하다.



그림 2.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본존인 석가여래상 **그림 2**의 수인은 오른손은 무릎 아래쪽 다리에 걸친 향마인이며, 왼손은 제1지와 3지를 맞대어 배 앞 허벅지 위에 얹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작은 편이며,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어깨선과 팔꿈치를 통해 연결되는 무릎 선까지의 신체 비례가 균형을 이루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측면은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 모습이며, 등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선은 비교적 곧은 편이다. 또한 가슴과 복부가 매우 두껍게 조각되어 비대해 보이며 무릎이 높고 하반신 역시 둔중해 보인다.

육계와 머리는 경계를 두지 않고 완만하게 처리하였고, 그 경계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각각 표현하는 일반적인 조선 후기 불상의 표현법을 따랐다. 얼굴은 길이와 폭의 비례가 정방형에 가까우며, 이마로부터 눈썹, 윗 눈꺼풀에 이르는 조각은 맛있게 처리하였으며, 가늘면서 수평으로 그은 눈, 얼굴에 비해 큰 듯한 코는 코끝이 둥글게 표현되어 丸美感 있게 처리되어 조각승의 수법을 엿볼 수 있다. 인중은 넓고 짧으며, 가는 입술은 양끝이 살짝 올라가 미소를 띠고, 양끝을 오목하게 처리하여 뺨



그림 3.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얼굴 세부

이 상대적으로 통통해 보인다 **그림 3.**

범의 **그림 4**는 조선 후기 향마인 여래상에서 볼 수 있는 변형식 편단우견으로,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흘러내린 대의자락은 오른손 팔꿈치를 거쳐 수평을 이루다가 왼쪽 어깨 뒤쪽으로 늘어뜨려져 있다. 즉, 어깨에서 팔꿈치, 배 앞, 어깨로 이어지는 대의를 입은 모습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 대의주름이 한 자락만



그림 4.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대의 세부

을 강조한 것이라든지 배 앞으로 U자상으로 흘러내린 대의 안쪽 면이 넓게 노출된 점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슴 아래 승각기 가운데를 사선으로 접는 것이나 그 윗면을 둥글려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을 강조하였다.

다리를 감싼 균의자락 **그림 5**는 양다리 사이 중앙에서 양쪽으로 넓게 펼쳐 가장 안쪽 자락을 강조하였으며, 그 양측으로 폭이 좁은 3개의 주름으로 정리하였다. 왼쪽 무릎 위 소매 자락은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접은 모



그림 5.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균의 세부



그림 6. 범어사 목조보살좌상(우협시)

양이 나뭇잎처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다.

좌우협시상 그림 6은 본존상에 비해 상의 높이가 10cm 가량 작게 조성되었으나, 신체 비례나 제작기법은 거의 동일하다. 보살상은 원통형 보관에 火焰寶珠와 瑞雲, 화문 따로 만들어 철사로 연결하여 장식한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 아래로 노출된 앞쪽의 보발은 1cm 간격으로 머리가닥을 구분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음각선을 촘촘히 새겨 모발을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나, 뒤쪽은 선조를 생략한 채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귀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세 갈래의 머리가닥은

어깨 위에 합쳐져서 이중 원형을 이루며 다시 세 갈래로 나누어 아래로 흘러내리게 표현되었다.

법 의는 변형통견식으로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고 그 위에 대의를 착용하였다.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대의자락 부분이 강조된 점은 본존상과 동일하나, 계단식 주름의 끝단이 물결무늬를 이룬다든지 배 앞에서 대의 밖으로 흘러내린 편삼이 대의와 서로 대칭을 이루는 점, 오른쪽에서 무릎 쪽으로 끝이 뾰족하면서 서 길게 흘러내린 소매자락은 본존상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발원문

대웅전 불상에서 발견된 『佛像記文』의 조사가 이루어지 전에는 대웅전 불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양단을 겪은 후에 화재로 소실된 전각을 중창할 경우 불상을 재조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범어사 대웅전도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범어사 대웅전에 대한 기록은 『상량문』과 『梵魚寺誌』에 남아 있으며, 불상 연대에 대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 기록에 기인한 것이다.

『梵魚寺誌』 『東萊府梵魚寺法堂重創兼丹艘記』에 따르면, 대웅전은 1602년에 妙全이 初創하고, 1658년에 重創하였다. 1658년에 海敏이 造相하였으며, 1713년에 이르러 (대웅전)이 쇠락하여 前任持 尙行과 釋摠, 時住持 興寶, 明治 등이 도모하여 중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또 다른 기록, 『梵魚

4) 『梵魚寺誌』, 『東萊府梵魚寺法堂重創兼丹艘記』, “…壬寅之世有子遺僧妙全輩初創之法堂戊戌重

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四階石梯盖石桶記』에는 甲子年間, 1684년에 老德 海敏과 제자 贊心이 발원하여 대웅전 금불삼존과 비로전 금불삼존을 조성한 사실을 밝히고 있어, 1658년에 새로 지은 대웅전에 모신 새 불상은 1684년에 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⁵⁾

이 두 기록에 의하면 대웅전은 1602년에 초창하고 1658년 중창하였으며, 해민이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발원하였다는 것이 일치하고 있어 분명한 사실로 생각된다. 그러나 불상 조성에 있어서는 1658년 발원하여 조성한 것인지 1684년 해민과 찬심이 함께 조성한 것인지 모호하게 적혀 있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조사로 알려지게 된 대웅전 불상의 『佛像記文』에는 順治 18年 (1661)에 熙莊, 寶海, 敬信, 雙默, 雷影, 神學, 清彦이 불상을 조성하였하였으며 그림 7, 幹善道人에 海敏, 別座에 贊心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記文의 내용을 통해서 해민과 찬심은 공동으로 불상 조성에 참여하였으며 1658년이 아닌 1661년에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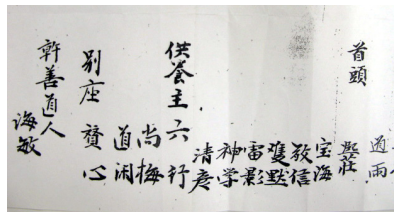


그림 7.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복장발원문(『佛像記文』)

조성 연대에 관한 문제는 약간의 시간적인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재건은 개별적인 전각과 전각에 봉안될 불상도 함께 조성되어야 하지만 사찰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창 선운사 대웅전, 창녕 관룡사 대웅전, 진주 응석사와 같이 한 전각을 세우고 몇 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전각을 세워 장기간에 걸쳐 재건과 불상 봉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⁶⁾, 전각을 세운 후에도 곧바로 1~2년 사이에 불상을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범어사 대웅전의 경우는 1602년 초창이 있는 이후 1650년대 후반(1658년)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으며⁷⁾, 해민과 찬심이 발원하여 불

創海敏造相云而初之既久據招差脫金碧澳漫有前住持尚行釋摠時住持興寶和尚明洽等…。”(『범어사지』, 아세아문화사, 40쪽.)

5) 『梵魚寺誌』, 『康熙五十九庚子正月日湖月文人存覺記』, “…去甲子年間有老德海敏公與弟子嘉善大夫贊心謀曰經云人生丈夫出家佛法實皆難得今四難皆之得之何幸如之然所謂成就佛道鳴矣與爾俱違則造佛造有何不可人生百世來日無多如羊入屠步步趨良可悲也即日盡傾所儲造大雄殿所安佛像金佛三尊又創毘盧殿而同道毘盧金佛三尊其功其德非世所謂隨列之善也…”(『범어사지』, 아세아문화사, 51쪽)

6) 송은석, 2007, 앞의 논문, 6~8쪽.

과 몇 년 후 1661년에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범어사 대웅전은 『범어사지』에 등장하는 해민은 주지를 지낸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1650년대 후반 범어사의 중창을 도모한 인물이 확실하며⁷⁾, 1684년의 대웅전 불상이 조성되었다는 『범어사지』의 기록은 시간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범어사 대웅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임란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빠르게 전각의 초창과 중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임진왜란 때 寶刹精舎로 왜구를 물리쳤으며, 또한 동해와 대마도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입지적인 조건이 작용하였을지 모른다는 시각도 있어 참고가 된다.⁸⁾

Ⅲ. 熙藏의 紀年銘 佛像과 그 特徵

1. 희장의 기년명 불상

1)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49년) 그림 8

수다사 극락전의 주존불로, 장방형의 중앙 불단 위 연화좌에 봉안되어 있다. 사찰측의 전언에 의하면 원래는 삼존불로 봉안되었으나 양측의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은 외부로 유출되어 대세지 보살상은 수다사와 멀지 않은 선산읍 원각사에 봉안되어 있으며, 관음보살상은 대구의 서봉암으로 이안되었다고 한다.¹⁰⁾ 근래에 개금불사과정에서 복장을 확인하였으나 유물은 이미 도난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7) 1993년에 실측조사 시에 대웅전의 행좌측 밖공에서 ‘順治十五年戊戌銘’ 즉 1658년 암막새가 발견되어 이 시기에 대웅전 공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강근, 1994,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5~118쪽).

8) 『梵魚寺誌』에는 歷代首任 및 任期에 대해 住持時代를 妙全을 시작으로 132년 87대, 僧統時代 160년 177대, 摠攝時代 14년 11대, 攝理時代 4년 3대, 現住持時代 30년간 8대까지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지시대에 1대 주지를 妙全이 역임하였으며, 海敏의 제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대웅전 불상 조성 당시 해민이 幹善道人, 찬심이 別座였던 것을 보면 찬심이 해민보다 연배가 낮은 것은 분명하다. 『범어사지』에 贊心은 24대, 32대, 39대의 주지를 지낸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梵魚寺誌』, 『禪刹大本山梵魚寺案内』, 261~269쪽; 박은경, 2004, 『禪刹大本山 梵魚寺 所藏 藏교미술품-高僧眞影의 현황과 특징』, 『考古歷史學誌』 제17·18합집, 東亞大學校博物館, 605~630쪽).

9) 고영훈, 2003, 『연혁』,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 61~71쪽.

10) 관음보살상은 대구 서봉암에 이안되었다고 하나 현재 그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며, 원각사는 사찰로서 규모를 갖추기 전에는 심씨 문중 재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아마도 사찰로 개조하면서 인근 수다사의 불상을 가지고 와서 전각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



그림 9.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원래 수다사 불상의 좌협시였던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그림 9는 조사과정에서 한지에 인쇄된 「묘법연화경」과 「다라니」, 「조성기」 등 복장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腹藏發願文」 그림 10에는 “順治六年歲在己丑九月日一善府西淵山水多寺 佛像造像時隨烹助緣抄記 阿彌陀佛 觀音菩薩 大勢至菩薩…”이라 하여 1649년 아미타불과 관음·세지보살상의 아미타삼존불의 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불상조성에는 熙莊, 天蹟, 敬玉, 太林, 敬湖, 信元, 寶海, 覺元, 敬先이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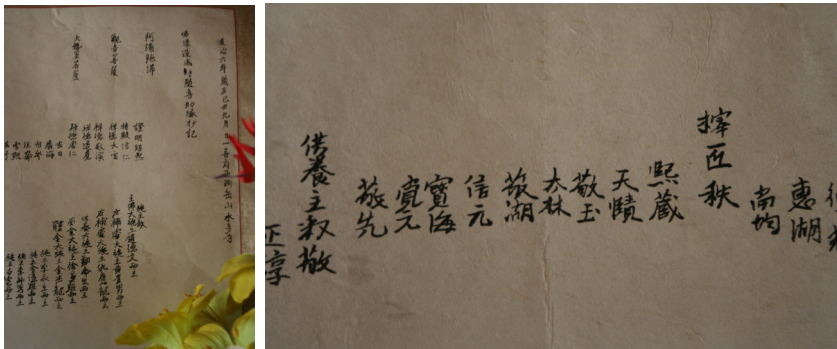


그림 10.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복장발원문 일부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된 본존상은 상반신을 앞으로 약간 구부려서 아래를 굽어 보는 자세를 취하였다. 측면에서 보면 가슴과 복부 측면 폭이 두꺼워 다소 둔중해 보인다. 상반신은 어깨가 넓고 당당하며, 다리 폭 또한 넓어 안정되어 보인다. 수인

은 아미타인을 결하였는데 제1지와 3지를 맞댄 양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들어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들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으로 보편적인 조선 후기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머리 위에는 일정한 크기의 나발을 가지런히 붙였다.

육계와 머리는 경계를 두지 않고 완만하게 처리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각각 표현하였다. 정방형에 가까운 얼굴은 턱 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나 여전히 양감이 남아 통통해 보인다. 눈썹에서 윗 눈꺼풀은 약간 두툼한 편이며, 이마로부터 쪽 뺨은 코는 코끝은 수평으로 꺾어 오뚝해 보인다. 인중선이 넓고, 작은 입은 입술이 얇고 양끝이 살짝 올라가 미소 짓고 있는 듯하다.



그림 11. 대의 좌측 세부
(좌: 수다사 아미타불상, 우: 원각사 대세지보살상)



그림 12. 군의 세부
(상: 수다사 아미타불상, 하: 원각사 대세지 보살상)

와 가운데 자락을 넓게 펴고 양측으로 좁은 3개의 주름으로 정리되었다 그림 12. 오른발 아래에서 무릎 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소매자락은 주름모양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군의 주름과 대칭을 이루며, 그 끝이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다.

착의는 변형통견식으로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고 그 위 입은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쳐 내려 팔꿈치 아래로 하여 배 앞으로 빼내 왼쪽 어깨 위로 넘긴 형식이다. 특히 대의자락 처리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른쪽 어깨 위 대의주름 한 자락만을 강조하여 그 끝이 깃처럼 접혀있고, 오른쪽 어깨에 내려오는 편삼자락은 대의 안으로 밖으로 반원을 이루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왼쪽 어깨를 덮어 내린 대의는 앞 쪽이 약간 들려있고 뒤가 처져 있으면서 넓은 주름을 이루고 있다 그림 11. 가슴 아래 입은 수평의 승각기는 가운데를 사선으로 접어 자연스러움을 나타내었으며, 결가부좌한 양다리 사이에 군의자락은 발목에서 내려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111cm의 크기로, 수인은 중품하생을 결하였 다. 이 불상 역시 측면이 두꺼우며, 높으면서 둥근 무릎이라든지 대의 가장 안쪽 자락이 깃처럼 늘어진 점, 군의 가장 안쪽 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는 점 등은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아 한 숨씨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오뚝한 콧 날, 짧으면서 넓은 인중, 깃바퀴의 모습 등 세세한 표현까지도 닮아 있다.

2) 진안 금당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1650년)

금당사 극락전 목조삼존상은 중앙 본존이 下品中生印을 한 阿彌陀佛, 그 좌우 협시가 觀音菩薩과 勢地菩薩인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다. 이 삼존 상의 형태는 협시의 보관·영락·연꽃가지 등 장식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한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에서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삼존상은 南原 金剛寺에 봉안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1650년 熙藏·信罔 이외에 7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¹¹⁾

본존상인 목조아미타불좌상 그림 13은 상반신을 앞으로 약간 구부려서 아래 를 굽어보는 자세 로, 측면에서 보면 가슴과 복부 측면 폭이 두꺼워 다소 둔중해 보인다. 어깨가 넓어 당당해 보이며, 다리 폭도 넓어 자세에 안정 감을 더한다.



수인은 아미

타인을 결하였는 그림 13.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불좌상(좌: 정면, 우: 측면)

대 제1지와 3지를 맞댄 양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들어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들었다.

착의는 변형통견식으로 편삼을 걸친 오른쪽 어깨 위에 다시 대의를 살짝

11) 송은석, 2007, 앞의 논문, 495쪽, 자료 62 『鎮安 金塘寺 大勢地菩薩坐像發願文』, “娑婆世界南瞻部洲朝鮮國全南道南原府地東嶺萬行山金剛寺佛像造成發願文…證明 熙日比丘 持殿 海敬比丘 別座 戒安比丘 供養主 熙益比丘 供養主 熙衍比丘 大化士處彦比丘 畫員秩 熙莊 比丘 信罔比丘 敬玉比丘 敬浩比丘 信元 比丘 寶海比丘 双默比丘 惠正比丘 覺元比丘…順治七年庚寅十月十四日結願隨喜等稽首。”

걸쳐 돌려 입은 형식으로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 대의 주름이 한 자락만을 강조되고 배 앞의 편삼과 대의가 반원을 이루면서 서로 대칭을 이루며, 왼쪽 어깨의 대의단의 처리 등 전형성을 띤다고 할 만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결과부좌한 양다리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군의 자락과 폭이 좁은 3개의 주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오른발 아래에서 무릎 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소매 자락은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나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과 매우 닮아 있다.

이 불상은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49년)보다 1년 늦게 조성된 것으로 신체 비례, 법의 형식 등에서 변화없이 전형화 된 듯한 인상을 준다. 다만 물결모양을 이루는 군의의 두께가 얇아지고 턱이나 콧등이 둥그러지고 있는 것은 이전에 조성된 상과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고흥 능가사 대웅전 협시상(원 고흥 불대사 불상)(1653년) 그림 14



그림 14. 고흥 능가사 대웅전 협시상(좌: 정면, 우: 측면)

전라남도 고흥 팔영산 기슭에 위치한 능가사에서는 대웅전 해체 복원 시 목조석가여래불좌상 내에서 3종의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었다.¹²⁾ 이 3종의 발원문은 1639년 雲惠가 조성한 불상의 복장발원문, 같은 해 淸憲에 의해 조성된 불상의 복장발원문, 그리고 다른 하나가 1653년 고흥 佛臺寺 불상을 조성한

熙藏의 이름이 기재된 복장발원문이다.¹³⁾

능가사 대웅전에 봉안된 석가여래좌상과 양측 협시상은 신체의 비례, 얼굴의 인상, 법의의 착의 등 표현법이 달라 서로 다른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본존상과 발견된 세 개의 복장발원문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⁴⁾

12) 문화재청, 2003, 『楞伽山 大雄殿 實測調査報告書』, 67~70쪽.

13) 『佛臺寺佛像 腹藏發願文』, “順治十年全羅道 興陽縣 曹溪山 佛臺寺 願以次功德 普及於一切 藥師佛 我等與衆生 皆供成佛道 主上殿下壽萬世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齊下壽千秋…畫員秩 熙藏 比丘 性明比丘 寶海比丘 雙默比丘 覺元比丘 戒祐比丘 淸眼比丘….”(문화재청, 앞의 책)

14) 이희정,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佛教美術史學』 제3집,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172~174쪽.

그러나 양식상 본존불의 협시상은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49년)처럼 정방형에 가까운 얼굴, 뺨, 턱 등 단정하고 절제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측면의 상반신과 하반신 등 전체적인 몸매가 매우 비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나 옷주름이 오른쪽 앞가슴에 것처럼 강조되어 있는 것, 양 다리 사이 가운데 넓은 주름, 왼쪽 무릎 쪽으로 늘어진 뽀족한 소매 자락은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나 금당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틀림없는 회장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⁵⁾

3)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1654년)

지금은 대운암 관음전의 주불상으로 봉안되어 있지만 복장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삼세불의 협시불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이 불상은 慶山 盤龍寺에 봉안된 제화갈라·석가여래·미륵보살의 삼세불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고¹⁶⁾ 熙莊, 性明, 慧瑞, 太澄, 普海, 双嘿, 覺元, 戒愚, 清眼 모두 9명의 화승이 동원되었다.¹⁷⁾

15) 송은석, 2006, 앞의 논문, 183~188쪽(송은석 선생이 지적한 바와 같이 회장의 작품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복장발원문과 불상은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 않아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16) 발원문 기록으로 미루어 경산 반룡사에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91년 10월 21일 본존불로 추정되는 석가여래존상은 도난당했다(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1999,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197쪽).

17) 『靑道大雲庵 佛像腹藏發願文』(송은석, 2007, 앞의 논문, 499~500쪽 자료 64.)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順治拾壹年閏逢敦祥癸賓之月日造相記錄

…(中略)…

造相所諸員尊号目錄

首禪宗大禪師	熙莊	緣化	願我此同結之
	性明	性允比丘	人等
彌勒菩薩	慧瑞	妙連比丘	願我盡生無別念
	太澄	別座寶琳比丘	
釋迦 世尊	普海	玉岑比丘	阿彌陀佛獨常隨
	双嘿	智悅比丘	
	覺元	尙玄比丘	心心常繼玉毫光
竭羅菩薩	戒愚	應吉比丘	
	清眼	鐵匠善手	念念不離金色相
	侍者愛日	朴芻龍兩主	
證師尋鈿太湖		隨喜施主	虛空即盡願不盡
持殿性雲		引勸化士	



그림 15.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좌: 정면, 우: 측면)

그러나 측면은 두껍게 표현되어 비대해 보이는 점이나 높은 무릎의 신체적 특징은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이후 그대로의 전통을 잇는 듯하다.

대의는 변형통견식으로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의 가장 안쪽 주름이 넓어 강조된 점은 동일하나 서로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왼쪽 어깨에 늘어진 대의는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나 금당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유사하다. 특히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은 균의에서 약간의 변형을 보이고 있는데 왼쪽 허벅지 위에 표현된 소매 자락, 양다리 사이로 길게 흘러내리는 균의 자락은 법의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더욱 부드러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1661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발원문에서 회장이 수화승으로 미륵보살·갈라보살의 이름을 구분하고 그 측면에 각각의 화승의 이름을 적고 있어 그 역할이 달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의 발원문 그림 10에서 보듯이 조성 불상의 존명만을 밝히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⁸⁾

法慧比丘

十方諸佛作證明

願已發願已歸

18) 수화승의 역할을 대신하여 좌우 협시 보살상을 그 제작자들이 담당하여 제작하였음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남해 용문사 대웅전 불상의 경우 본존상과 협시상이 신체의 비례, 얼굴의 인상, 법의의 착의 등이 매우 유사해 보이거나 조각 수법이라든지 미묘한 양식적인 차이를 보여 제작자들이 불상을 조성하였는지 혹은 협시상의 도난이라든지 화재에 의해 망실되어 보완을 하기 위해 본존상을 모방하여 다른 조각승들에 의해 제작되었는지는 좀 더 비교·검토가 필요할 실정이다.

4) 부산 선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1658년)

부산 선암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에서 『造像重修願文』, 『若功悟道卷』, 『新造成願文』 등과 후령통, 「다라니」, 『妙法蓮花經』의 일부 등이 발견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불상의 복장에 공양물을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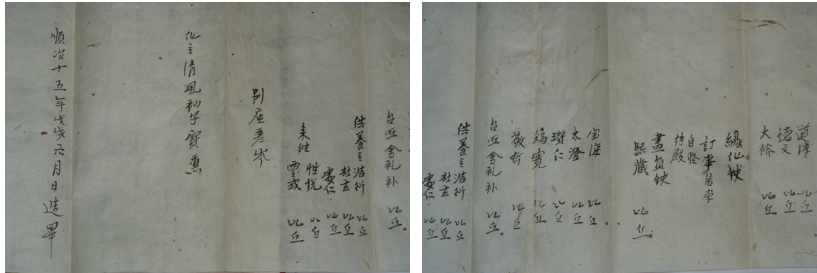


그림 16. 부산 선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 「新造成願文」(1658년)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新造成願文』 그림 16으로 한지를 연결하여 제작한 것으로 접철식으로 접혀 있으며, 제일 겹장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목서가 있다. 그 내용 중의 緣化秩에는 아미타불을 조성한 熙藏, 寶海, 太澄, 瓚仁, 智寬, 敬哲의 화승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불상의 조성은 順治 15年(1658)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熙藏 彫刻의 特徵

이상에서 소개한 회장이 제작한 불상에 표현된 공통된 특징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어깨가 당당하고 균형 잡힌 자세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측면에서 보면 불·보살상 모두 팔이나 가슴 복부가 두꺼워 비대하고, 둔중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 후기 불상에서 그 구도를 잡아 나가는 것은 조각승의 개인적 양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熙藏과 같이 측면을 두껍게 잡아 비대하고 둔중해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守衍이 조성한 수덕사 대웅전의 목조삼세불상에서와 같이 가슴은 당당하면서 복부를 지나치게 빈약해 보이도록 한다든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조각승 운혜는 불상의 상반신이 길면서 가슴과 복부의 큰 변화없이 조각하는 등¹⁹⁾ 조각

19) 최선일, 2004, 『全羅南道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 도 7·13.

승마다의 조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희장이 제작한 불상 그림 17·18·19는 군의, 승각기, 대의 등의 세부적인 표현방법이 동일하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는 가장 안쪽자락이 강조되듯 깃처럼 표현된 것이나 왼쪽 어깨를 덮은 대의 자락이 내려와 앞쪽이 약간 들리고 뒤로 처져 있는 모양은 그가 제작한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윤희의 경우 대의가 상박까지 내려와 끝단이 나비모양으로 접혀져 있어²⁰⁾ 희장의 불상과 비교된다.



그림 17. 희장 作 불상(본존상) 측면
(좌: 수다사 아미타불상, 중앙: 금당사 아미타불상, 우: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불상)



그림 18. 희장 作 불상(협시상) 측면
(좌: 원각사 대세지보살좌상, 중앙: 대운암 보살좌상, 우: 범어사 대웅전 보살좌상)

²⁰⁾ 최선일, 2004, 앞의 논문.

변형통견식의 경우 오른쪽 어깨의 편삼 자락은 가슴 아래로 내려와 대의 안으로 반원형을 그리면서 대의와 편삼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칭의 형태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법의 표현법이기도 하다. 또한 다리를 감싼 군의자락은 양다리 사이 중앙에서 양쪽으로 펼쳐지듯 처리되었는데 가운데 자락을 넓게 두고 그 양측으로 폭이 좁은 주름이 각각 3단씩으로 펼쳐지듯 정리되었으며, 특히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이나 범어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경우 군의의 두께가 좀더 얇아지면서 부드러운 곡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오른쪽 발 아래에서 무릎 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소매 자락은 그 끝이 뾰족하여 표현한 것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며,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의 경우는 허벅지 위에 소매 주름이 단축하게 표현되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범어사 대운전의 본존상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 외에도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코를 중심으로 모인 듯한 이목구비, 특히 코의 변화인데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경우 이마로부터 쪽 뺨은 코가 오펝하면서 코 아래를 수평으로 깎아 전체적으로 정제된 느낌을 주는데 청도 대운암 목조보살좌상(1654년)의 경우 오펝한 코는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유사하나 뺨이 둥글면서 통통해지고,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61년)의 인상과 닮아 있는 변화가 보이며, 범어사 상의 경우는 이마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이 한 번 꺾이면서 코끝이 둥글게 처리되어 더욱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을



그림 19. 회장 作 불상 군의 세부
(상: 수다사 아미타불상,
중앙: 금당사 아미타불상,
우: 범어사 대운전 석가여래상)



그림 20. 회장 作 불상 얼굴 세부
(좌: 수다사 아미타상,
우: 범어사 대운전 석가여래상)



그림 21. 회장 作 보살상 얼굴 세부
(좌: 대운암 보살상,
우: 범어사 대운전 보살상)



그림 22. 희장 作 불상 귀 세부
(좌: 수다사 아미타상,
우: 범어사 석가여래상)

그림 23. 희장 作 보살상 귀 세부
(좌: 원각사 대세지보살상,
중앙: 대운암 보살상, 우: 범어사 보살상)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21. 또한 그림 22·23에서 보듯이 수다사 목조 아미타불좌상(1649년)에 비해 사실감이 떨어지고 다소 탄력감이 감소하면서 귀와 같은 대륜이나 컷바퀴가 딱딱하면서 입체감 없이 조각되어 있다.

표 1. 熙藏의 작품 사례

번호	연대	지역	봉안처	작업내용	조각승	비고
1	1649년	경북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	熙藏, 天蹟, 敬玉, 太林, 敬湖, 信元, 寶海, 寬元, 敬先	腹藏發願文
2	1649년	경북	구미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熙藏, 天蹟, 敬玉, 太林, 敬湖, 信元, 寶海, 寬元, 敬先	腹藏發願文
3	1650년	전북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熙莊, 信罔, 敬玉, 敬浩, 信元, 寶海, 雙默, 惠正, 覺元	腹藏發願文
4	1653년	전남	고흥 불대사	미 상	熙藏, 性明, 寶海, 雙默, 覺元, 戒祐, 清眼	腹藏發願文
5	1654년	경북	청도 대운암	목조보살좌상	熙莊, 性明, 慧瑞, 太澄, 普海, 雙嘿, 覺元, 戒愚, 清眼	腹藏發願文
6	1658년	부산	부산 선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	熙藏, 寶海, 太澄, 瓚仁, 智寬, 敬哲	腹藏發願文
7	1661년	부산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熙莊, 寶海, 敬信, 雙默, 雷影, 神學, 清彦	腹藏發願文

이상과 같은 변화의 원인은 조각승의 구성 혹은 조각승의 개인적인 변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熙藏을 비롯하여 天蹟, 敬玉, 太林, 敬湖, 信元, 寶海, 寬元, 敬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54년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

살좌상은 熙莊, 性明, 慧瑞, 太澄, 普海, 双嘿, 覺元, 戒愚, 淸眼, 1661년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은 熙莊, 寶海, 敬信, 雙默, 雷影, 神學, 淸彦으로 구성되어 회장과 보해를 제외하고는 같은 인물을 찾을 수 없어 회장 개인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적인 조선 후기 조각승들의 작품 후반에 힘이 빠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²¹⁾ 지금까지 기존 조사와 기록을 중심으로 회장의 작품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회장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오가며 불상은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 사찰에 봉안된 목조불상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게 한다. 이 중 회장 작품의 특징과 가장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 통도사 약사전과 극락보전에 봉안된 불상이다. 약사전과 극락보전은 두 건물 모두 고려 공민왕 18년(1369) 성곡대사가 지었다고 전하고 중건된 연대는 역시 정확하지 않다.²²⁾

그러면 회장이 제작한 불상들과 약사전 불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약사전에 봉안된 약사여래좌상 그림 24, 중앙은 높은 불단 위에 단독으로 봉안되어 있다. 건장한 어깨와 방형에 가까운 상반신, 무릎이 둥글면서 높고 다리 폭도 넓어 자세가 안정감 있어 보인다. 그러나 측면은 정면과 달리 어깨와 가슴의 너무 두꺼워 비대해 보인다.



그림 24. 회장 作 불상과 통도사 약사전 불상 비교
(좌: 수다사 아미타불좌상, 중앙: 통도사 약사전 약사여래좌상, 우: 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불좌상)

21)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전반기 활동한 현진이 제작한 불상(송은석, 2004, 앞의 논문, 68~99쪽, 도 20·21·22·30·31)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무염의 불상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처음의 작품은 당당하면서 힘이 있고 양감이 살아 있으며, 후반기로 갈수록 전형성을 띠면서 힘이 빠지고 부드러운 경향을 보인다. 무염 작품은 1635년 영광 불갑사의 경우 어깨가 당당한 반면 신체가 다소 둔중하고 비대해 보이며, 신흥사 불상으로 갈수록 상반신이 길어지면서 신체의 비례가 적당하여 안정감을 가지며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보인다(문명대, 2006, 『조각승 無染과 道禿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 미술사』 26호, 23~51쪽, 도 2·3·6·7).

22) 약사전의 경우 어간 후면에 봉안된 약사후불화는 영조 51년(1775)에 조성된 것이며, 건물 양식 역시 18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5. 불상 얼굴 비교(좌: 수다사 아미타상, 중앙: 통도사 약사전 약사여래상, 우: 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상)

방향의 얼굴은 턱 쪽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고, 두꺼워 보이는 옷주름, 쪽 뺀 오뎅 한 코, 짧으면서 넓은 인중, 가는 입술과 입가에 미소는 온화하면서 인자하며, 단정하고 절제되어 있다(그림 25).

범의는 변형편단우견으로 오른쪽 어깨의 가장 안쪽 자락이 강조된 것이나 왼쪽 팔을 덮어 내린 대의가 앞을 들러 있고 뒤가 약간 처져 흘러내리는 의단의 처리는 회장이 조성한 불상과 유사하며(그림 26), 전체적으로 대의를 입은 정면의 모습이 직사각형을 이루면서 왼쪽 어깨 쪽으로 대의를 넘겨 마무리하였는데, 대의 안쪽의 노출된 모양이나 직사각형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대의가 범어사 대



그림 26. 불상 측면 비교(좌: 수다사 아미타상, 중앙: 통도사 약사전 약사여래상, 우: 범어사 대웅전 보살상)

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1661년)의 대의를 입은 형태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그림 27).



그림 27. 불상 대의 비교(좌: 범어사 석가여래상, 우: 통도사 약사전 약사여래상)

대의를 변형편단우견으로 입은 경우는 조각승마다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무염이 제작한 1635년 영광 불갑사의 본존상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으면서 전체적으로 걸친 모습인 팔

꿈치 쪽에서 약간 벌어져 사다리꼴모양을 이룬다든지, 현진이 제작한 1629년 창녕 관룡사 불상과 같이 약간의 사다리꼴을 이루면서 가슴 쪽 대의의 벌어짐이 타원형을 이루는 등은 그 좋은 실례라 할 것이다. 또한 발목에서 내려오는 군의 안쪽자락이 넓고 양측으로 갈수록 좁은 주름을 이루는 점은 회장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 외 세부적으로 귓바퀴가 둥글면서 대륜과 삼각와의 형태가 유사한 등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닮아 있어 한 조각승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주며 그림 28, 양식적인 특성상 1649년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제작연대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8. 불상 귀 비교

(좌: 수다사 아미타상, 중앙: 통도사 약사전 약사여래상, 우: 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상)

한편 원래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은 현재 통도사의 말사인 원효암으로 이안되어 주불로 모셔져 있는데,²³⁾ 이 불상의 복장발원문에는 통도사 약사전 불상으로 1648년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29.²⁴⁾ 현재 약사전에 봉안된 불상이 언제 어떻게 봉안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약사전 전각을 확장하면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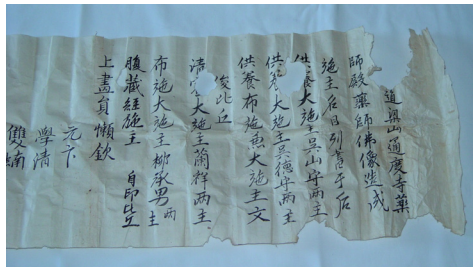


그림 29. 양산 원효암 불상 및 복장발원문(1648년)

23) 석조로 제작된 불상으로 높이 77.0cm, 어깨 너비 39.0cm, 무릎 너비 55.5cm이다.

24) 2005년 1월 12일 문화재지정을 위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장발원문은 한지 3장이 이어 만든 것으로 가로 116cm, 세로 28.8cm로 상태는 양호하였다. 발원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道梁山通度寺藥 師殿藥師佛造成 施主名目列書于后…上畫員 懶欽 元下 學清 雙蝸 惠英 雪玉 彥伊…佛像化主魚山道人熙敏 順治五年戊子七月 日。”(통도사 약사전 약사불을 조성한 나흠은 회장과 함께 1638년 하동 쌍계사 불상 조성에 참여하였는데 淸惠을 수회승으로 하여 회장은 이때 7번째로, 나흠은 9번째 회승으로 기재되어 있어 흥미롭다).

에 의해 1648년 불상을 다른 곳에 이운하고 새로이 제작한 것인지 혹은 통도사 다른 전각에 봉안되었던 것을 이운해 이곳에 봉안되었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²⁵⁷

또한 통도사 극락보전에도 3구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비대해 보이는 측면 비례, 방향에 가까운 체구와 오른쪽 어깨 위에 강조된 대의 자락, 넓게 펼친 가운데 자락이 약사전의 불상과 닮아 있으면서, 특히 얼굴의 형태, 곧은 콧대, 넓은 인중과 입매 등 세세한 부분과 이러한 표현들이 만들어내는 인상, 특히 보이지 않은 깃불과 귀의 세부적인 표현까지 매우 닮아 있다. 이 삼존상 역시 조성연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649년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이 표현상의 특징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654년 이후 얼굴이라든지 법의가 좀 더 얇아지면서 부드럽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대운암 관음전 보살좌상과는 차이를 보여 1650년대 전반경에는 약사전과 극락보전의 불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IV. 熙藏의 활동과 관련 조각승

이상에서 회장이 조성한 불상과 그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조각승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듯이 회장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제작한 불상 내에 발견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그의 활동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의 조사와 기록들을 통해 회장의 조성활동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기록에 보이는 熙藏의 활동

번호	연대	지역	봉안처	작업내용	조각승	비고
1	1638년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 · 보살입상	淸憲, 勝日, 法玄, 英頤, 賢徹, 應惠, 希藏, 尙安, 權欽, 靈湜	腹藏發願文
2	1646년	전남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불좌상	勝日, 熙藏, 太元, 性照, 戒贊, 天學, 寶海	腹藏發願文
3	1649년	경북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	熙藏, 天頤, 敬玉, 太林, 敬湖, 信元, 寶海, 寬元, 敬先	腹藏發願文

²⁵⁷ 통도사 약사전 불상은 변형편단우견으로 법의를 입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석가여래가 입는 법의 형식이며, 약사전에 봉안되기 경우 불상은 변형 통견식의 법의를 착의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은 다른 곳에서 이운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번호	연대	지역	봉안처	작업내용	조 각 승	비고
4	1649년	경북	구미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熙藏, 天頤, 敬玉, 太林, 敬湖, 信元, 寶海, 寬元, 敬先	腹藏發願文
5	1650년	전북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熙莊, 信罔, 敬玉, 敬浩, 信元, 寶海, 雙默, 惠正, 覺元	腹藏發願文
6	1653년	전남	고흥 능가사 (원 불대사)	목조아미타불상· 약사불상	熙藏, 性明, 寶海, 雙默, 覺元, 戒祐, 淸眼	腹藏發願文
7	1654년	경북	청도 대운암	목조보살좌상	熙莊, 性明, 慧瑞, 太澄, 普海, 雙黑, 覺元, 戒愚, 淸眼	腹藏發願文
8	1658년	부산	부산 선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	熙藏, 寶海, 太澄, 瓊仁, 智寬, 敬哲	腹藏發願文
9	1661년	부산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熙莊, 寶海, 敬信, 雙默, 雷影, 神學, 淸彥	腹藏發願文
10	1678년	경남	남해 용문사 명부전	목조지장상·시왕상	智玄, 寶海, 虛垣, 神學, 義英, 楚行, 靜璘, 覺明, 敬諱, 坦英, 敏英, 勝還, 義堅, 信惠, 印戒	腹藏發願文
11	1680년	전남	고흥 송광암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	寶海, 雪坦	腹藏發願文

우선 희장의 처음 등장은 1638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7존상의 제작인데 청헌을 수화사로 하여 구성된 화승 중 7번째 화사로 등장하며, 8년 뒤인 1646년에는 구례 천은사 불상을 제작할 때에는 승일의 차화사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수화사로서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불삼존불좌상, 1653년 고흥 불대사 목조아미타불상·약사불상, 1654년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 1658년 부산 선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제작 등 1638년부터 1661년까지 20여년의 활동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그의 활동을 재구성해 보면, 1630년대에는 보조 화승으로서 활약하였으며, 1640년대 중반경에는 승일의 차화승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쯤 수화승으로서의 활약이 예상된다. 그리고 수화승으로서 1649년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시작으로 12년의 활동이 보이는데 1650년대에는 매년 불상이 제작되는 것을 보면 그의 활동에 전성기를 맞이한 듯하다. 앞으로 조사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희장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勝日(一)의 경우 보조 화승으로 수화승의 활동을 통틀어 1629년부터 1670년까지 40여 년간의 활동이 확인되며, 조각승 운혜의 경우에도 1639년부터 1670년대 후반까지 역시 40여년의 활동이 확인되는바 아직 범어사 대웅전

이상의 연대를 가진 불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회장 역시 1670년대까지 그의 활동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장 작품은 17세기 중·후반에 하나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회장과 같이 불상 구성에 참여한 화승의 활동을 검토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표2를 통해 보면 회장과 가장 많은 활동을 한 화승을 살펴보면, 寶海(普海)라는 인물이 눈에 띈다. 보해는 1646년 천은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조성할 당시부터 등장하여 발원문에는 7번째 화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에는 7번째,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에는 6번째, 1653년 고흥 능가사 목조아미타불상·약사불상 조성에는 3번째, 1654년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에는 5번째 화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658년 부산 선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제작에는 차화승으로 활약하고 있어 거의 회장과 같이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흥미롭게도 이를 통해 보조화승의 수련기간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보는 것이 가능한데, 보해의 경우 1646년부터 차화승까지 기간을 보면 12여 년간으로 십여 년 이상 보조 화승의 수련기간을 보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 남해 용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1678년)
(좌: 정면, 우: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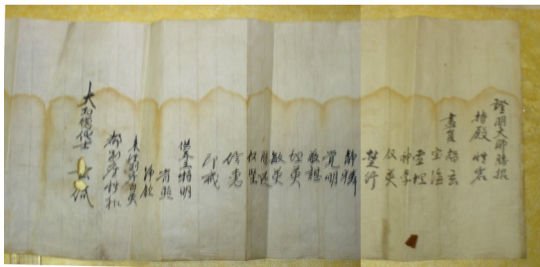


그림 31. 남해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 발원문

남해 용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그림 30은 그 복장발원문 그림 31에 의하면 智玄이라는 수화승을 중심으로 寶海, 虛垣, 神學, 義英, 楚行, 靜璘, 覺明, 敬諶, 坦英, 敏英, 勝還, 義堅, 信惠, 印戒이 참여하여 만든 불상으로 한눈에 보아도 회장의 작품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에 비해 머리가 약간 작은 듯하지만 측면으로 보면 상반신과 하반신이 비대하면서 든중한 느낌을 주며, 오른쪽

어깨 대의 안쪽 자락이 깃처럼 강조되어 있는 점, 양 다리 가운데 넓게 펼쳐진 주름을 중심으로 주름을 양측으로 정리한 점, 그리고 무릎 쪽으로 흘러내린 뽕죽한 소매 주름 등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회장의 불상에 비해 어깨가 위축되어 보인다는지 아이와 같은 인상, 균의단이 길어지고 얇으면서 더욱 부드러워진 것은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용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보다 2년 뒤에 조성된 1680년 고흥 송광암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 **그림 32**는 보해가 설탄과 함께 제작한 상으로 오른쪽 어깨 대의가 강조된 옷주름, 양다리 사이 넓게 펼친 균의 자락 등 회장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신체의 비대함이 줄고 얇아졌으며, 위축되어 보이는 어깨 등 보해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두 상만으로 회장풍의 유행을 논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존하는 불상중에는 회장 혹은 회장풍으로 조성된 불상이 전라도와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 앞으로 좀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확실해 질 것이다.



그림 32. 고흥 송광암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

V.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범어사 대웅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회장은 현재까지 조사 연구를 통해 1649년 수다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시작으로 1661년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불좌상까지 12여년의 활동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전반적으로 상의 측면이 매우 두텁게 표현되어 있으며, 오른쪽 어깨 대의의 안쪽 주름을 깃처럼 빼낸 것이나 양다리 사이 넓게 펼쳐진 주름, 무릎 쪽으로 흘러내리는 소매주름은 회장이 제작한 불상에서 오랫동안 표현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통도사 약사전과 극락보전의 불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 한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장은 1638년 쌍계사 목조삼세불·보살입상 조성에 보조 화승으로 등장하여 1661년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의 조성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작품은 17세기 중·후반의 유행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회장과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寶海, 그리고 남해 용문사 명부전 목조지장상·시왕상을 조성한 智玄과 같은 인물이 회장의 작품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 부산 범어사와 통도사 원효암 조사에 참가는 물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문화재 위원 이용현 선생님과 동아대학교 박은경 교수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事蹟記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1966, 『全羅北道寺刹史料集』, 『佛敎學報』 3·4.
林錫珍 原著, 古鏡 改正編輯, 2001, 『曹溪山 大乘禪宗 松廣寺』, 松廣寺.
朝鮮總督府, 1911, 『朝鮮寺刹史料』(亞細亞文化社, 1986년 影印).
朝鮮總督府, 1911, 『朝鮮金石總覽』(亞細亞文化社, 1976년 影印).
秦弘燮 編著, 1988, 『韓國美術資料史集成』 7, 一志社.
韓國學文獻研究所, 1977, 『曹溪山松廣史庫』, 亞細亞文化社.
韓國學文獻研究所, 1989, 『梵魚寺誌』, 亞細亞文化社.
韓國學文獻研究所, 1997, 『華嚴寺誌』, 亞細亞文化社.

報告書·資料集

『觀龍寺大雄殿修理報告書』, 2002. 6, 文化財廳.
『谷城郡의 佛敎遺蹟』, 2003, 국립광주박물관.
『범어사 대응전 수리공사』, 2003.
『불교유적 도난백서』, 199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求禮郡의 文化遺蹟』, 1994,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求禮 華嚴寺實測調査報告書』, 198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楞伽寺大雄殿實測調査報告書』, 2003, 문화재청.
『수도산 봉은사 지표조사보고서』, 2004,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봉은사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 『楞伽山 大雄殿 實測調査報告書』, 2003, 문화재청.
『上樑文集(補修時 發見된 上樑文)』, 1991,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寺刹誌』, 1990, 전라북도.
『靈光 母岳山 佛甲寺 地表調査報告書』, 2001, 동국대학교박물관·영광군.
『完州 松廣寺 鐘樓實測調査報告書』, 2000. 12, 문화재청.
『全南金石文』, 1990, 전라남도.
『全南의 寺刹』, 1989, 목포대학교박물관.
『全羅北道의 佛敎遺蹟』, 2001, 국립전주박물관.
『指定對象佛像調査報告書』, 1988, 문화재관리국.

圖錄

- 『梵魚寺聖寶文化財解説集』, 2002, 범어사정보박물관.
『梵魚寺聖寶博物館名品圖錄』, 2002, 범어사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 2002,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2003,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남도·대전광역시』, 2004,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자료집』, 2005,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자료집』, 2007,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최완수, 1995, 『명찰순례』, 대원사
채상식·서지창·김창균, 1994, 『범어사』, 대원사.

論著

- 문병대, 2006, 『조각승 無染과 道祐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 미술사』26호
박은경, 2004, 『禪刹大本山 梵魚寺 所藏 불교미술품-高僧眞影의 현황과 특징』, 『考古歷史學誌』 제17·18합집, 東亞大學校博物館.
宋殷碩, 2001,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로운 발견-조선 후기 조각전』, 호암미술관.

- _____, 2004, 『17世紀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 70·71.
- _____, 2006, 『고흥 능가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항산 안취준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
- _____, 2007, 『17世紀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俞弘濬, 1999, 『毘瑟山 明寂庵 木造阿彌陀佛坐像』, 『美術資料』 62.
- 이강근, 1999,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정,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佛敎美術史學』 3.
- 崔宣一, 2004, 『전라남도 和順 雙峰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勝 雲惠』, 『佛敎美術史學』 2.
- _____, 2006, 『朝鮮後期 彫刻僧의 活動과 佛像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Wooden Seated Statue of Three Buddha in Beomeosa Temple, Busan, and Hui-Jang's Statues

Lee, Hee Jung

Beomeosa temple which is located in Geumjeong-gu, Busan, is one of the temples that have been maintaining its competent status since its establishment in Unified Silla Period. The main dharma hall, especially, is one of a few remaining structures of mid Joseon period. Within the main dharma hall, the wooden seated statue of three Buddha created in mid Joseon Dynasty is enshrined. The statue was created by seven sculpting monks including Hui-jang and its details are recorded in the *Bulsanggimun*(The Record of Buddhist Statues, 佛像記文)that has been separately kept by the temple.

Hui-Jang, a monk and a sculptor of Buddhist statues was active during the period of mid and later Joseon Dynasty. The preceding studies resulted that Gumi Sudasa temple's Wooden Seated Amitabha Statue of 1649, Gumi Wongaksa Temple's Wooden Seated Bodhisattva Statue of 1649, Jinan Geumdangsa Temple's Wooden Seated Statue of Three Amitabha of 1650, Cheongdo Daeunam's Wooden Seated Amitabha Statue of 1654 were the creations of Hui-Jang. Through the recent research on the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we could understand about ten years of Hui-Jang's activities as a sculpting monk including the creations of Busan Seonamsa temple's Buddhist statue in 1658 and Busan Beomeosa temple's Buddhist statue.

For many years, Hui-Jang's work on the Buddhist statues has depicted; a pretty thick side on the upper garment, a special emphasis on the right shoulder's wimple as a feather, a wrinkle between the legs that are spread, and a wrinkled sleeves toward the knees. Hui-Jang's noticeable features are also presented in Tongdosa temple's hall of the

www.kci.go.kr

medicine Buddha and hall of the pure land of Amitabha, and it has the same features with those created in 1650's.

In 1638, Hui-Jang began his activities as an assistant monk for painting. His activities flourished up to the creation of Beomeosa temple's statue in 1661. Hui-Jang's activities took place in and around the provinces of Gyeongsang-do and Jeolla-do.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were sculpting monks who followed the idiom of Hui-Jang. There is only a slight differences in the facial features, the proportion of body, and carving techniques where sacerdotal robe becomes thinner and softer; however, the other sculpting monks like Bo-Hae and Ji-Hyeon followed the Hui-Jang's style, and it is assumed that Hui-Jang's style led differently during the mid and later 17th-century than the early 17th-century. Namely, those Buddha statues created during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either by Hui-Jang or bears the Hui-Jang's idiom could be located within the provinces of Gyeongsang-do and Jeolla-do. If there are increases in the research works and studies on such topic, then it will be possible to approach the issue of sect which is one of concerned topics in the study of Buddha statues, which created during the latter period of Joseon.

Key words: Hui-Jang, monk-sculptor,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